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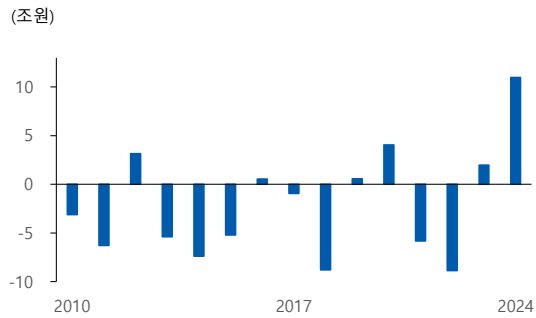


올해 외국인 순매수 선두는 미국과 영국

1. 2024년 국내주식 순매수는 미국과 영국이 선두

-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는 22.8조원. 미국은 13.7조원, 영국은 11.0조원의 국내주식 순매수.
- 영국은 작년 11월과 12월에도 5.7조원을 순매수하여,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6조원을 순매수하였음.
-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영국계 자금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음.

2024년 영국은 연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인 11조원의 국내주식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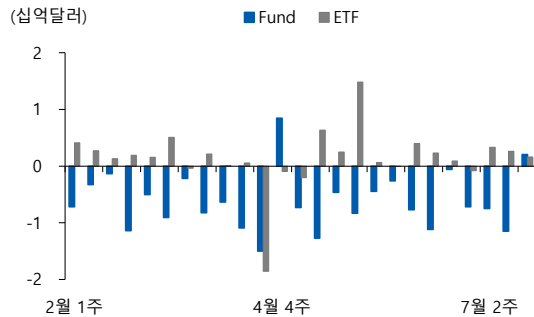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신흥국 주식펀드, 순유입 전환

- 1분기까지 순유출이 이어지던 신흥국 주식펀드는 2분기부터 순유출 규모가 줄어들었고, 7월 마지막주에는 순유입으로 전환.
-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는 연초 이후 꾸준하게 자금 유출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7월 중순 이후 순유출 규모 증가.
- 8월 첫주부터 전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향후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에서는 자금 유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신흥국주식펀드는 7월말 순유입으로 전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2024년 국내주식 순매수는 미국과 영국이 선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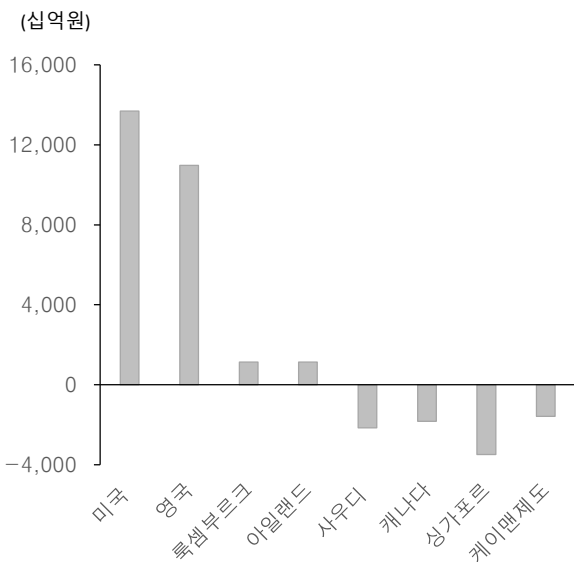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는 22.8조원이었다. 이 중에서 미국은 13.7조원, 영국은 11.0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다. 이외에는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가 1조원 규모의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다.

영국은 작년 11월과 12월에도 5.7조원을 순매수하여,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6조원을 순매수하였다. 2010년 이후 영국의 국내주식 순매수 패턴과는 매우 다른 움직임이었으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올해 2월부터 월간 2~3조원의 국내주식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으며, 영국의 순매수 규모가 줄어든 4월 이후에도 순매수를 이어갔다. 반면, 사우디와 캐나다·싱가포르 등은 연초 이후 국내주식의 순매도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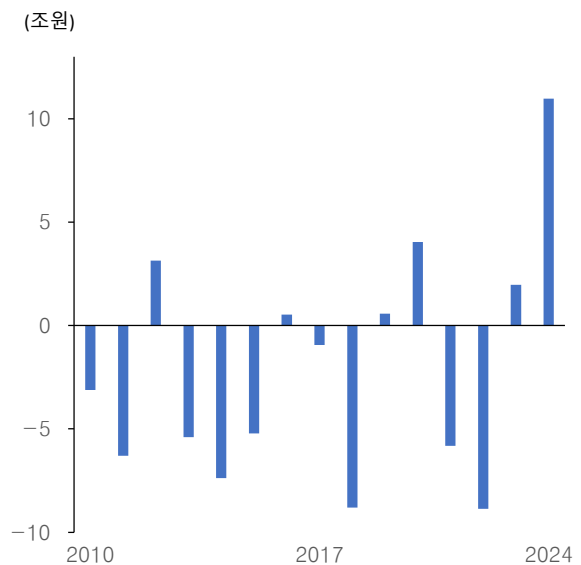
작년 10월 9.0%였던 외국인 중 영국의 비중은 6월 9.5%까지 높아졌다.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영국계 자금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차트1] 2024년 국가별 국내주식 순매수 상위 국가는 미국과 영국 .



자료: 금감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2024년 영국은 연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9조원의 국내주식 순매수.



자료: 금감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미국의 투자 심리는 관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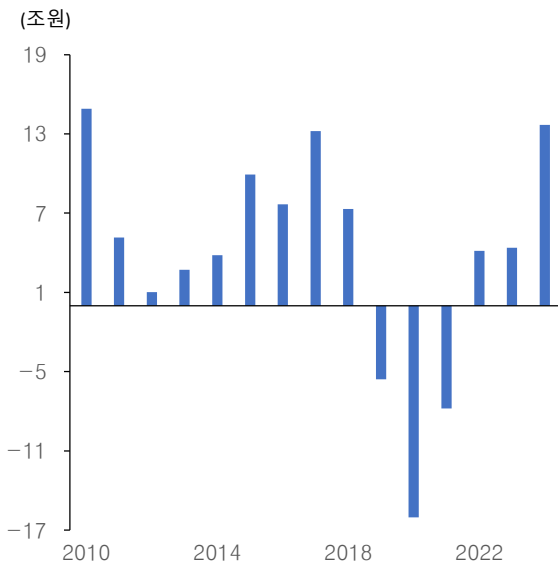
미국은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 헤지펀드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퇴직연금과 뮤추얼펀드의 영향력이 커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연간 국내주식 순매수 동향을 살펴보면, 2019~2021년을 제외하면 순매수를 해왔다. 2024년은 6개월만에 13.7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수하면서 한국주식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에서 6월 4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9.5%)과 싱가포르(7.7%)와 차이가 크다. 작년말의 외국인 중 미국의 비중은 40.9%보다 낮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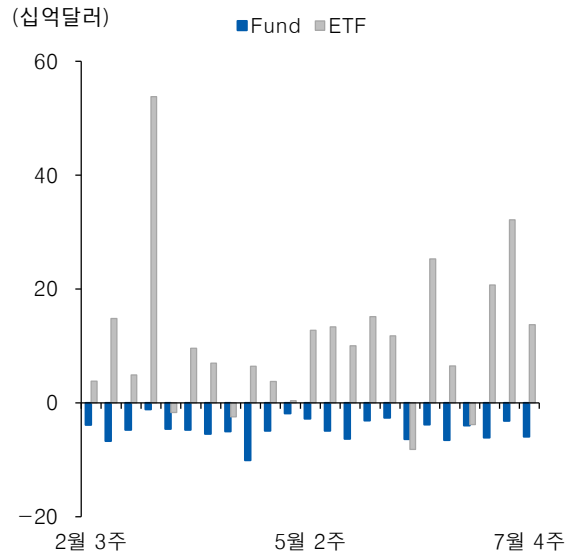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도 2분기를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미국주식ETF는 5월 이후 유입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 주식 펀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이다.

[차트3] 2024년 미국은 연간 기준으로 13.7조원의 국내주식 순매수.



자료: 금감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미국 주식펀드로의 자금유입 이어지는 상황.



3. 신흥국 주식펀드, 순유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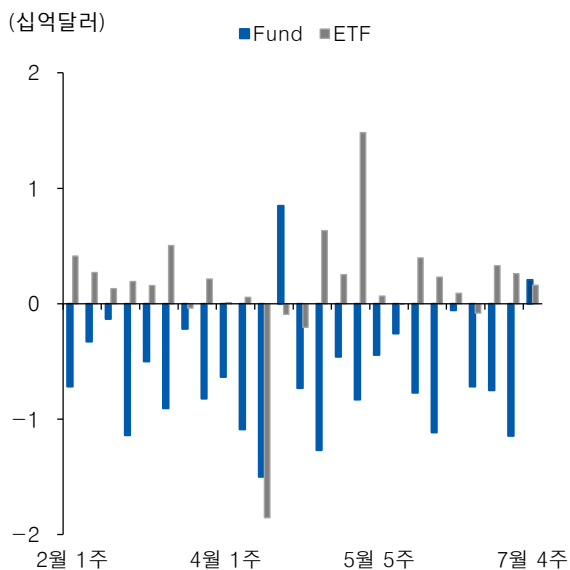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신흥국 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펀드는 신흥국주식펀드와 아시아(일본제외)주식 펀드를 들 수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는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와 중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순유출을 이어왔다.

1분기까지 순유출이 이어지던 신흥국 주식펀드는 2분기부터 순유출 규모가 줄어들었고, 7월 마지막주에는 순유입으로 전환하였다. 신흥국 주식펀드가 주간 순유입을 기록한 것은 1월 이후 처음이다.

신흥국주식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큰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는 연초 이후 꾸준하게 자금 유출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7월 중순 이후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에서는 순유출 규모가 다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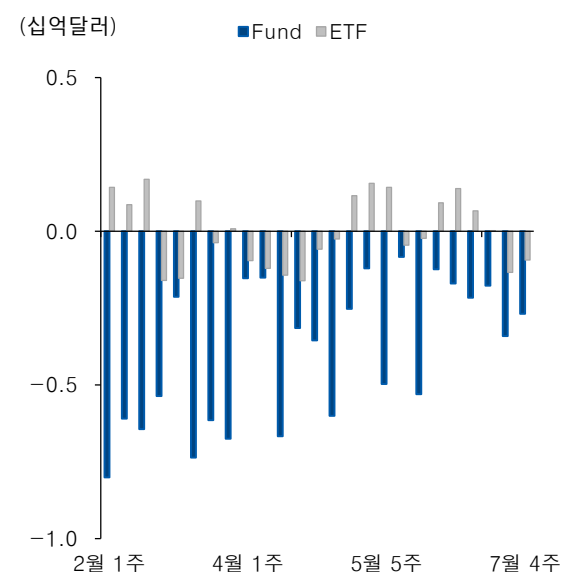
8월 첫주부터 전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향후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에서는 자금 유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차트5]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신흥국주식펀드는 7월말 순유입 전환.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는 자금 유출 규모 감소 추세 이어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